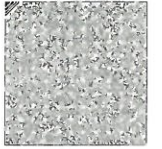



시 주 보

제2361호 2021년 10월 10일(나해)

연중 제28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 지혜 7,7-11

화답송 | 시편 90(89),12-13,14-15,16-17(◎ 14 참조)

-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 히브 4,12-13

복음환호송 |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 마르 10,17-30 <또는 10,17-27>

영성체송 | 시편 34(33),11

-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유승록 라우렌시오 신부 | 등촌1동성당 주임 겸 17지구장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마르 10,21)

오늘 복음에서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다는 그를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그는 결국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 부자는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었으나 그의 삶에서 중심 자리는 하느님이 아닌 재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 깊은 일치로 나갈 수 있는 자비로운 초대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느님 아닌 다른 그 무엇도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내면의 결단을 촉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신앙인의 삶은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 현세적인 축복으로 내려주신 물질적인 부를 잘 사용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나누며 소유한 재물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는 재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거스르고 그분께 다가설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너무나 쉽게 하느님 뜻에서 벗어나는 이들,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그 재물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신앙의 여정에서 교회 공동체가 길을 잃지 않고 활기차고 자유롭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택하고 그분의 뜻을 섬기는 자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무엇인가에 쫓기듯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위에 맑고 시원스러운 하늘이 있다는 평범한 사실조차 잊고 지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잠시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가을의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봅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향한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 하나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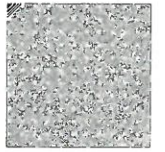
진도 초서리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르 10,17)



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은出口的 빛을 향해 걷는 것뿐입니다. 살다 보면 어둠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암흑같은 절망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걷다 보면 그 길 끝엔 한 그루 나무처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장은미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장일범 발렌티노 | 음악 평론가

천사의 빵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에서 작년 8월 17일에 마이 크를 잡고 아침 10시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저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지 6개월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유쾌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아파도 웃는다.'는 말처럼 유쾌함을 잃고 싶지 않았고, 클래식 음악을 공연장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없는 시기지만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으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팟캐스트로 먼저 시작했던 방송 이름이었는데 가톨릭평화방송에서도 좋아해 주셔서 놀랍게도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은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BS 클래식FM에서 장일범의 '음악풍경', '생생클래식', '가정음악'을 13년간 맡아 진행하면서 많은 음악가들과 새로운 음반, 공연을 만나며 음악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1년에 못 미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악방송에서 아침 방송인 '창호에 드린 햇살'을 진행하면서 한국 국악계와 국악을 알차게 공부할 수 있었고요. '가정음악'을 진행할 즈음 가정을 이룬 아내와 저는 10년간 진행했던 '가정음악'을 그만두면서 두 가지 소원을 마음에 품었고, 그 소원들은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걸어서 미사를 참례할 수 있는 성당 옆으로 이사하기, 두 번째는 가톨릭평화방송에서 행복하게 클래식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결국 차를 타고 다니기는 하지만 마음만 먹고 좀 일찍 나오면 성당에 걸어가갈 수도 있는 거리에 이사를 했고, 작년에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의 클래식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바라던 대로 가톨릭평화방송에서 클래식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감사 기도를 올렸고, 하이해지지도, 교만해지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즐겁게 방송을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을 시작할 때 가톨릭평화방송의 진행자라는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첫 곡은 방송을 맡는 저의 사명감과 자세를 고백하는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그 곡은 바로 세자르 프랑크의 미사곡 중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라틴어로 가사를 쓴 '천사의 빵 (Panis angelicus)'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주년 기념 앨범 발매 콘서트에서, 부족한 솜씨지만 저도 이 곡을 cpbc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부르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성체성사의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종으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을 통해 코로나로 지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튜브를 통해 늘어나고 있는 외국 청취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영국의 BBC3 보다 더 좋은 클래식 방송, 지혜와 환희가 함께하는 방송을 매일, 성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이지요.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김경희 아녜스
가락동성당

가을날 듣는 파헬벨 <Canon(카논)> & 로드 맥쿠언 <And to each season(앤드 투 이치 시즌)>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심의위원

서울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음악칼럼>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숨이 막히던 무더위도 살랑 부는 가을바람 앞에서는 어느새 잊혀진 존재가 되어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크고 작은 걱정들이야 왜 없겠습니까마는 이제 코로나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1년 주기로 바뀌 굴러가듯 해마다 반복되는데 우리는 어째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움을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계절'에서 영감을 얻나 봅니다. 하이든은 오라토리오 <사계(四季)>로, 비발디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로, 또 러시아의 작곡가 글라주노프는 발레곡으로 <사계>를 표현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 음악 칼럼에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소품집 <사계>에서 '6월 뱃노래'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죠.

10월,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귤가에 맴도는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음악입니다.

파헬벨 맥쿠언(Pachelbel-McKuen)
And to each season(앤드 투 이치 시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한 파헬벨(Johann Pachelbel, 1653~1706, 독일)의 <카논(Canon)>에 미국의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배우이기도 했던 로드 맥쿠언(Rodney Marvin McKuen, 1933~2015, 미국)이 아름다운 시 <And to each season(앤드 투 이치 시즌)>을 엮어서 노래한 음악입니다.

파헬벨의 <카논>은 아시다시피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인 조지 윈스턴(George Winston)이 이 곡의 주제로 변주곡을 만들면서부터 아주 대중적인 클래식이 됐습니다. <카논>

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로드 맥쿠언의 <And to each season(앤드 투 이치 시즌)>을 들으면, 순환하는 계절을 통해 인생의 흥망성쇠, 자연의 이치와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노래하고 있지만 유독 가을 부분이 귀에 와 닿는 것은 아마도 포근히 감싸듯 나직이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가 가을과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맥쿠언은 이 곡에서 가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Deep down in autumn all of the brown leaves fall on the garden and cover up the lawn. Let us remember each year in turn then when there was sun enough to cover up the wrong. 깊은 가을, 갈잎이 모두 정원에 떨어져 잔디를 덮어요. 우리 매해 하나하나 기억하기로 해요. 잘못을 덮을 만큼 햇빛이 충분하던 때를.

지난해에도 그 전해에도 함께 했던 가을이지만 올해 가을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있습니다.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던 <카논>이지만 이렇게 로드 맥쿠언의 시가 엮여져서 아주 색다른 <카논>이 된 것처럼요. 우리의 이 가을이 새롭고 특별하며 다채롭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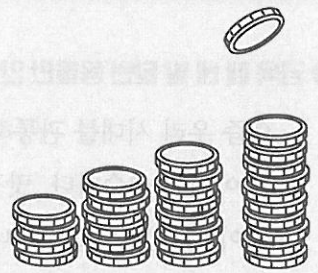
파헬벨(Pachelbel)
카논(Canon) [연주: 이 무지치(I Musici)]



'카논'은 한 성부가 주제를 시작하면 다른 성부가 뒤이어 그 주제를 똑같이 모방하면서 화성진행을 맞추어 나가는 음악의 한 형식을 말합니다. 간단히 '돌림노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돈이 되는(?) 서울주보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주보에 연극이나 뮤지컬 등에 대한 소식이 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그 작품을 할인된 가격에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표를 예매했어도 현장에서 서울주보를 내면 할인된 만큼 현금을 지급해 줍니다. 현장 판매 경우에는 서울주보를 창구에 제출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주보를 들고 가서 할인을 받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공연장에 실제로 가 구석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서울주보를 지참하지 않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서울주보를 내고 할인 가격으로 표를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넘쳤습니다. “어! 서울주보가 돈이 되네.”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실 귀퉁이에 다단으로 여러 개가 붙은 쿠폰처럼 작은 형태로 만들어 그것만 지참하도록 할까 생각하다 그냥 서울주보를 통째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주보를 몇 줄이라도 더 볼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연극이나 뮤지컬 혹은 영화 관계자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문화 소식란에 적극적으로 공연의 할인행사를 문의합니다. 할인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실험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서 할인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 아무리 콘텐츠가 좋은 책이나 음악, 연극, 영화도 마

공연



정약용 프로젝트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3형제가 구현한 천주교 인간 사랑 정신을 말, 노래, 춤 등 신선하고 독특한 조선 뮤지컬로 꾸민 토리극이 11월30일(일)까지 정동극장에서 열린다.

시간: 화~금 오후 7시30분(이번 주 주보를 지참한 교우에게는 특별 할인함) / 문의: 751-1500

전시

색채의 미술사-사갈전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색채화로 추앙받는 마르크 사갈 전시회가 10월15일(금)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사갈 전 생애의 작품을 7개의 테마(연인, 사갈의 상상, 파리, 서커스, 성서 이야기, 호메루스의 오디세이, 지중해의 세계)로 구성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주보를 제시하면 특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24-2904-6(www.chagalkorea.com)

케팅에 실패하면 효과가 퇴색됩니다. 물론 마케팅에 앞서 광고(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주보는 한국 가톨릭 내에서 신임도와 열독률, 발행 부수의 측면에서 볼 때 월등한 홍보매체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홍보위원회 활동이 서울주보와 굿뉴스를 두 기둥으로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 요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 할인(Markdown)은 마케팅과 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는 누구나 싼값에 좋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심

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등에서도 세일 기간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선교도 홍보(광고)나 마케팅(판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할인 쿠폰의 경우는 특정 금액을 할인해 주기에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서울주보의 할인 전략(?)은 더욱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영화나 연극뿐 아니라 도서나 강의 프로그램 등 더욱더 할인 대상의 폭을 넓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서울주보에 나온 내용(강론, 교리, 교회 사건 등)으로 시험을 보면 어떨까요? 고득점을 받은 분들에게 성지 순례 상품권을 드리는 것도 상상해 봅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가 되겠지만요...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금육 때 네 발 달린 동물만 안 먹으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요즘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먹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맛집 문화를 통해 미식을 즐기는 것이 한창 유행을 하더니, 이제는 먹방을 통해 과식을 기꺼이 즐겨보는 문화도 눈에 띕니다. 세상이 이토록 먹을 것에 열광하는 중인데, 교회는 반대로 금식, 금육 등을 아직도 가르치며 먹을 것을 자제하라 하고 있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금식과 금육을 강조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시대의 먹는 문화는 사실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개인’의 즐거움입니다. 음식을 줄이고 다이어트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기쁨을 위한 개인적 실천에 국한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음식을 개인의 소비물이라는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음식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관계, 나아가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금식, 금육은 그런 시각 안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기 이전의 종교나 철학들은 단식을 개인의 건강과 복을 희망하며 실천하는 극기로 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로, 또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리라는 희망을 드러내는 표지로 단식을 대했습니다. 이로써, 단식은 하나의 기도의 형태로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출판사 ‘4천년의 기도, 단식’ 3장 참조)

또한, 금육과 금식은 우리가 음식이라는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식, 금육을 오랫동안 자선과 연결시켜 실천해 왔습니다. 금식과 금육을 통해 아끼

들은 나 자신이 아니라 꼭 이웃을 위해 베풀 것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확인해왔던 것입니다. 이로써,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한 범주로 묶일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매년 5월 14일은 기도와 단식과 자선 실천의 날로 지정되어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식에서 발견되는 공동체성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환경의 차원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찬미받으소서 212항 참조). 개인의 기쁨을 위해 소비되는 육류 등이 공동의 집인 지구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막대합니다. 동일한 영양소를 생산하기 위한 효율성의 측면에서 고기는 매우 뒤떨어집니다. 토마토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214리터의 물이 필요한 반면, 도축 이후 가공하는 과정 등을 포함하여 소고기 1kg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은 15,415리터라고 합니다. 이미 지구 담수의 70%는 농축산업에 사용되고 있지요(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iPET 창 81호 참조). 그리하여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지난 2020년에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특별 사목 교서 실천 지침’에서도 육류 중심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와. 서론이 정말 길었는데요. 금육과 금식을 개인적인 극기의 차원에서만 보면서, ‘두 발 달린 건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차원보다 더 넓게 바라보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정 두 발 달린 동물을 금요일에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국 천주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중 금식, 금육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전해 드립니다.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기도로 지킬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만약 금육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 참고할 수 있겠고, 다른 방식으로 금육을 실천하신다고 하더라도 ‘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공동체적인 규정이 덧붙여 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 모성과 부성의 의미 -

“아버지는 없어도 되지 않나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 2,18)

최근 한 방송인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여 아기를 낳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비혼 출산이라는 문제는 체외수정(시험관아기)이 지닌 윤리적 문제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출산과 양육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합니다. 심한 경우 아버지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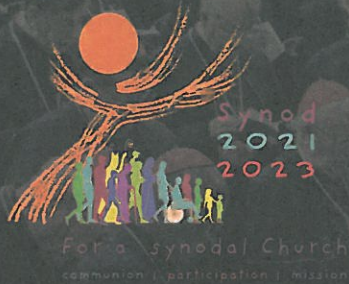
한 아이의 출생은 축하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이 고귀한 행위가 어느 한 사람의 바람에 좌우된다면, 이는 새로 태어나는 생명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에 대한 도구화, 물질화의 위험성에 빠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태중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성장하고, 산통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는 놀라운 탄생의 신비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아버지의 존재를 단지 유전자를 주고 경제적 부양을 하는 데에 국한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상이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주장이 ‘아버지는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고 동의할 수 없으며, 그래서 오히려 더욱 올바른 모성과 부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상이 그를 환대해주는 좋은 곳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아이들의 친밀함과 공감 능력을 촉진하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이가 현실의 한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나아가 방향의 제시, 더 넓고 도전이 넘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노력과 헌신의 권유라는 두드러진 특성을 보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하고 적절한 남성적 정체성을 지니며,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만큼이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성과 남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존재할 때, 아이가 성장하는 데에 최적의 환경이 마련됩니다(사랑의 기쁨 175항).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고 하신 창조 사업의 협력자이며, 부부는 고유한 부부 사랑을 기반으로 자녀 사랑을 통해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부성과 모성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서로서로 보완하고 존중하면서 아이가 올바르게 성숙하도록 이끌어 줄 것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자라난 아이 역시 성숙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자녀를 위한 기도 중)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6차 정기 총회 개막 미사

2021년 10월 17일 오후 12시

사진출처: 평화방송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임기 중 세 번째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세계주교시노드)를 소집하심으로써 제16차 정기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평신도, 사목자, 로마의 주교가 모두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대해 성찰하도록 온 교회를 초대하십니다(For a synodal Church: communion, participation, and mission).

이제까지 세계주교시노드는 정해진 시기에 대의원 주교들이 함께 모여 개최하는 회의였습니다. 이번에 소집되는 세계주교시노드의 정기 총회는 2023년 10월에 열립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뜻을 가진 주교들의 회의에 시노드 교회(하느님 백성의 함께 걷는 여정)를 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로써 세계주교시노드가 하느님 백성 전체, 곧 지역 교회인 교구 차원에서 시작하여 국가(주교회의) 차원과 대륙 차원의 식별을 거쳐 보편 교회 차원의 순서로 진행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세계주교시노드 진행 과정을 통하여, 교회, 즉 하느님 백성 전체가 '시노드적'이므로 하느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또 이 시노드 준비 과정 안에서 시노드 교회 자체를 체험하도록 초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회의 시노드(함께 걷는 여정) 체험이 하느님께서 삼 천 년대 교회가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며, 오늘날 세계에 복음으로 선포하는 예언적 모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주교시노드의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개막 미사는 2021년 10월 9일~10일에 로마에서 먼저 거행됩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의 개막 미사는 2021년 10월 17일에 개별 교구 별로 거행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로마 교회 개막 후 지역 교회 개막 미사까지의 7일 동안을 세계주교시노드의 거행을 위한 영적 준비 기간으로 지내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에 서울대교구에서는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제한된 인원만 참여하는 개막 미사를 거행합니다. 신자 여러분께서는 가톨릭평화방송 TV와 유튜브를 통해 개막 미사(오후 12시)에 참여하여 세계주교시노드의 첫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묵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나눔 운동' 참여 방법

- 참여방법 1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참여방법 2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미음한몸운동본부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8년 10월 12일 최상준 시몬 신부(33세)
- 2001년 10월 14일 박성춘 레오 신부(86세)
- 2009년 10월 11일 최광연 모세 신부(73세)
- 2017년 10월 11일 박순재 라파엘 몬시뇰(80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1 밤 9시에 한반도 평화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2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교구청일람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 박해론 개인전: 1전시실
- 공미숙 개인전: 2전시실
- 채색세밀화전 '美': 3전시실
- 전시일정: 10월13일(수)~18일(월)

주교좌 명동대성당 하반기 견진성사

- 신청대상: 세례성사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
- 신청기간: 10월17일(일)~11월25일(목) / 반드시 구비서류 지참 후 명동성당 사무실로 내방 접수
- 구비서류: 명동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고
- 교육일정: 11월28일~12월19일 매주(일) 14시~15시30분(4주간, 대면수업)
- 견진성사: 12월26일(일) 14시, 대성전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을 위한 온라인 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10월16일 10시30분
 곳: 온라인 비대면 미사 / 문의(참여): 02)318-3079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2021~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10월25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수림 모니카, 한지현 에스텔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12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0월1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의주 본당, 강계 본당
 유튜브 통해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 (유튜브-'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직원모집

우리농본부(명동) 마케팅 전문 직원 모집

온라인 쇼핑몰 및 앱 플랫폼 운영 직원 모집
 서류: 응시원서,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자기소개서(우리농 소정양식-wm.kr), 포트폴리오 / 10월14일(목) 18시까지 이메일(wooriong@catholic.or.kr) 접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	010-2140-7414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10월17일(일) 14시~16시	본원(미아리) 또는 Zoom	010-9816-0072(pddm.or.kr)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0월16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11월7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극장 신부



가톨릭 퀴즈 서바이벌

굿뉴스가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모든 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으로 여러분의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도우미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굿뉴스는 앞으로 새로운 퀴즈 게임을 통해 교우들의 교리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새로운 사목, 선교 활동을 위한 매체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
- 2 어려운 가톨릭 교리와 상식을 게임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는 퀴즈 게임
- 3 가톨릭 상식, 가톨릭 역사, 구약성경, 신약성경, 가톨릭 교리 등 다양한 분야의 퀴즈 구성
- 4 수천명 이상의 친구들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실시간 퀴즈 배틀
- 5 본당별 / 교구별 가톨릭 퀴즈 대회 개최
- 6 본당 순위 / 교구별 순위 통계 제공
- 7 굿뉴스 회원 정보와 연동



인준단체 알림

모임

젊은이 가을 쉽 피정

때: 10월29일(금)~31일(일) 2박3일 / 회비: 6만원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명창) / 대상: 35세 미만 여성
 문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젊은이 온라인 성령기도회(아자리아 선교단)

대상: 성령기도회에 함께하고 싶은 모든 젊은이
 때, 곳: 10월12일(화) 오후 8시30분, Zoom 온라인
 참여문의: 카카오톡 '아자리아' 플러스 친구·인스타그램(azariah_2021) DM 문의 / 문의: 042)824-6773

효순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10월22일~25일, 11월5일~8일, 11월19일~22일, 12월3일~6일, 12월10일~13일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용)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피정	11월6일~9일, 11월14일~17일
자연순례 피정	10월21일~23일, 11월20일~22일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정역)
 문의: 02)575-7661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음악치유 피정반	10월20일~11월3일 매주(수) 13시~16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10월21일~11월4일 매주(목) 13시~16시	회비: 15만원

교육

복음화학교 145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개강

때: 10월5일(화) 오전 10시 /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0410-0411 새천년복음화학교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그리스도인 성장의 길-목요신학강좌(한국CLC)

때: 10월21일~11월25일 매주(목) 19시30분(6주)
 곳: 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회비: 대면 8만원·비대면 6만원 / 문의(접수): 02)333-9898

10월21일	회칙·모든 형제들로 세상 보기	박동호 신부
10월28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이재돈 신부
11월4일	현대 세계에서의 영적 자유	전주희수사
11월11일	사회적 영성-개인적 영성을 넘어	정정일박사
11월18일	사회적 모성 리더십	강영욱박사
11월25일	세상속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식별	현재우박사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원)
 블로그: blog.naver.com/pc21s / 010-5313-6554(문자)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다네이 글방(예수고난회)

하느님을 향한 책임기와 글쓰기
 때: 매월 2회 모임(비대면 혹은 대면)
 문의: 010-9503-1127, 033)673-0035·3355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영성특강(하반기)

때, 곳: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 명례방 지하 1층
 회비: 회차당 1만원(선착순 접수) / 문의: 02)3147-2402

10월	바로로 사도와 교회의 신앙	김상우 신부
11월	프란치스코 교황 문헌	박동호 신부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 수강생 모집(27차)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7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인원: 기초반 10명, 초급반 10명, 중·고급반 각 5~6명
 개강: 10월12일(기초·초급반), 10월14일(중·고급반)
 접수: 10월11일~14일(선착순) / 문의: 010-6219-1575

(화)	기초반 10시30분~13시	초급반 14시~16시30분
(목)	중급반 10시30분~13시	고급반 14시~16시30분

성경속에서 나를 만나다(전교가르멜 수녀회)

대상: 여성 신자 / 문의(접수): 010-2037-9262

오전반	10월20일부터 첫째·셋째주(수) 10시	비대면 총 7회
저녁반	10월27일부터 둘째·넷째주(수) 20시	
젊은이반	10월16일부터 매주(토) 10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2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1차 전형 원서접수: 10월18일(월)~28일(목)-전형일 11월13일(토)·2차 전형 원서접수: 11월15일(월)~25일(목)-전형일 12월11일(토) / 문의: 02)705-8668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모집

제8회 가톨릭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분야: 행사 진행(영화제 기간), 자막번역·감수(사전)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미사

성모님 발현 104주년 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고해성사,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10월13일(수) 10시~12시, 가톨릭회관 3층·1층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서울 후원회 미사 /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모든 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자만 참석 가능
 때, 곳: 10월15일(금) 10시~11시, 본원(세경점)
 코로나19 대응 위해 인원제한: 접수 필수

들꽃마을 서울 영성강의 및 미사 취소 안내

때: 10월12일(화) / 문의: 054)955-4133, 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 발현미사(팔로티회·천주교사도직회)

미사: 장화기 신부(010-6212-4450)
 때: 10월13일(수) 12시~16시 / 야외 미사
 곳: 자비의 산(홍천군 남면 물구비길 160)

인내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영성 / 컷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울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2022년 중립동약현성당 혼인 예식 추천 안내

추천: 10월17일 오후 3시 / 문의: 02)362-1891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60만원(카드 불가)
 주의사항-2022년 1월, 2월 혼인예식 마감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ijscen.or.kr

'자기답게 살기'를 돕는 수지에너지그램	상시
의식성장을 위한 내면아이 작업	상시
스트레스 해소와 내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한 명상 심리치료	상시

유관단체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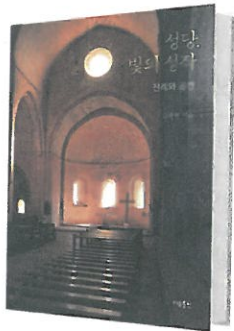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

양업문화교육원 성경 통독프로그램

회비: 1학기 2만원 / 문의: 010-2741-5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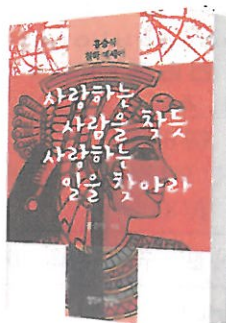
겨자씨 4반	10월 개강, 매주(월) 9시~12시(1년 과정) 카카오톡 활용 / 구약·신약
겨자씨 2반	9월 개강, 매주(월) 20시~22시 카카오톡 활용 / 신약
겨자씨 3반	10월 개강, 매주(목) 14시~17시(1년 과정) 카카오톡 활용 / 구약·신약
성경 심화반	9월 개강, 매주(목) 20시~21시(1년 과정) Zoom 활용 / 신부 직접 지도



신간
성당, 빛의 성작

김광현 지음
이유출판 | 464쪽 | 3만3천원
문의: 010-3894-8346

40여 년간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친 저자는 신앙을 통한 믿음과 공동체에 대한 소망, 건축에 대한 사랑으로 이 책을 썼다. 저자는 성당 건축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성당은 '최고의 사회적 건축'이자 '모든 이의 기쁨인 건축'이고, '집의 근본을 말하는 집'으로서 공동체 공간의 원점임을 밝힌다.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홍승식 지음
철학과현실사 | 350쪽 | 1만6천원
문의: 02)579-5908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철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공부하고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18명의 철학자를 선택하여 그들의 철학 사상을 소개한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사상과 잘 어울리고 맥을 같이하는 내용의 성경 구절을 각 장마다 인용, 설명하여 철학의 이해를 돕는다.



신간
묵주알을 찾아서

스테파니 앵글먼 지음
바오로딸 | 300쪽 | 1만8천원
문의: 02)944-0944

주인공인 열여섯 살 케이트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추모식에서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할머니의 묵주알을 발견한다. 그 후 할머니의 묵주알을 발견한 다른 사람들 만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의 다른 묵주알을 찾으려 하면서 체험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았다.



신간
나는 내 인생을 살거다 너도 네 인생을 살아라

문중원 지음
기쁜소식 | 192쪽 | 1만3천원
문의: 02)762-1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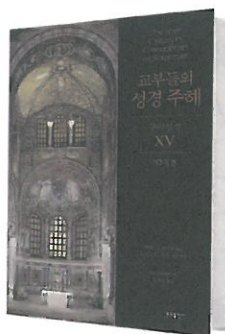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 중 특별히 '상호의존'과 '상호의존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나 자신이 상호의존 관계에서 자유로운지 점검하고, 영성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을 극복하여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신간
늘 푸른 성경 여정 신약3

마이클 페크 지음
생활성서사 | 168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교회 안에서의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에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가는 이 책은 젊은 신앙인을 위해 특화된 성경 교재이다. 신약 성경 시대에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을 당시의 시대적·종교적 상황 안에서 이해하도록 안내할 뿐 아니라 2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한다.



신간
교부들의 성경주해 구약-제2정경

세베르 J. 보이쿠 지음
분도출판사 | 704쪽 | 6만원
문의: 02)2266-3605

『교부들의 성경 주해』는 신·구약 성경 전권에 대한 교부들의 사상과 신앙을 그 정수精髓만 뽑아 현대어로 옮겨 엮은 29권의 방대한 총서다. 이 총서는 신약성경이 마무리되는 시기부터 존자 베다를 포함하는 8세기 중엽까지, 7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성경 해석을 다루고 있다.

제2197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안령회장 : 차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형제, 자매님들을 찾습니다."

+ 찬미 예수님
 지난 1년여 동안 연희동 성당은 구역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당 구역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성당구역을 정비하면서 알게된 여러 사항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묵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인 10월 한 달동안 지금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가족, 이웃 등)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이후, 지난 3년간 연희동 성당에서 아무런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성사생활, 봉사활동, 교무금내역, 기타등등..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주미상으로 분류, 입력 될 예정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노력으로 쉬는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 또는 구역장(반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자 입교식 : 10월 31일(주일) 11시 미사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11월 3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11월 7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 교리재교육이 필요한 교우들도 함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1월 28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9/1~26).

성 명	세 례 명	구역/반
양희진	대건안드레아	5-2
장주영	요한	1-1

◎ 청년 성서모임 '새암성서' 가을학기 봉사자 모집

- 청년 성서모임 '새암성서'에서 함께 성경그룹 나눔에 도움 줄 청년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10월 상시
- 개강 : 10월 중 개강
- 과목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 문의 : 대표봉사자 정종현 사도요한 (010-3223-5747)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10일(화)~11월 17일(수)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7752-4976)
 * 신청은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 오늘은 리모델링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10. 3)

총세대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205	835	1,370	45.2%	42.0%	37.9	36.3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기금 (9월 27일~10월 3일)

누 계916,446,861원

◎ 감사헌금 (9월 27일~10월 3일)

정수진일십사만원 익 명삼십만원
 한인경일십만원 익 명삼십만원
 박명숙사만원 송정순이십만원
 최석우오만원 노계숙일백만원
 이정훈.....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7주일)

교무금13,880,000원
 주일헌금3,673,000원
 군인주일 2차헌금2,226,000원